



##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까지까지 설날은 어저께구요~ 설날 중심은 언제나 마음 설렌다.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운영하는 시립은평노인복지관이 설날을 앞둔 2월 15일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차례상 올리기 행사를 가졌다. 인덕어린이집 원아들이 독거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모습이 예쁘기만 하다.  
 글·사진=고영배 기자

## 규제 위주 법령 개정 추진

조계종 추진위 구성... ‘공익기능’에 무게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했다. 추진위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전통사찰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향유와 체험의 공간으로의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내외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전통문화 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익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 국가법령을 전통사찰이 역사·문화적 역할과 사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또 전통사찰 행위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의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전통사찰이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 내 정신문화·복지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출범식에는 서울 봉은사, 화계사, 진관사 등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 및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이해당국회 정각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이주 노동자 대책위 구성하자”

종단협 인권위, 여수참사 계기로 성명 발표

불교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최관)는 2월 13일 조계사 교육관 3층 종단협회의실에서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참사 외국인노동자문제 해결을 촉구하며’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 진관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국민의 문제이다. 지금처럼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앞세워 탄압에 가까운 행정만을 고집한다면 해외동포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국민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23개의 출입국관리소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들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 “으~아, 음악포교·봉사활동 제대로 한번 들어대겠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 김홍국 회장 창립 15주년 맞아 새도약 다짐

“와~우 저 김홍국이 대한불자가수회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들이밀테니 불자님들 기다리세요. 으~아.”

격정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국가대표 불자 연예인 김홍국 대한불자가수회장(49)은 요즘 고인이 많다.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의 조직이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조직부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대한가수불자회는 현재 200여명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발파나 행사때 나오는 인원은 50명도 채 안됩니다. 하지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회원을 늘리는 등 숫자에 연연하기 보다는 소수정예로 힘차게 펼 것입니다.” 김 회장은 우선 간부들과 수차례 협의의 과정을 거쳐 불자가수회의 1년 실행계획을 예년보다 빨리 세웠다. 3월 3일 청계사에서 열리는 산행법회 및 자원보호 캠페인이 첫 출발점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산사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격월로 자원보호 캠페인과 군법당 위문공연, 독거노인돌봄 봉사활동도 활발히 펼친다. 개인적으로는 5월 15일 오후 7시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자선디너쇼도 연다.  
 김주일 기자



## I Love Buddha / 망설이지 말고 저질러보자

용정운(www.zentoon.com)



##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인물經世상鏡

두 보살님은 “죽는 날까지 함께의 지하며 수행하자”며 7년째 함께 ‘토굴살이’를 하고 있다.

매일 새벽 3시에 기침하여 예불 필요했다. 파주시 문산읍의 한 마을, 야트막한 집은 정갈했다. 무상화 보살님이 올해 아흔 세 살 되신 대원각 보살님과 단출하게 사시는 집이다. 늘 북북차림인 두 보살님은 신라의 ‘노힐부득’과 ‘탈탈박박’ 혹은 중국의 ‘한산과 습득’을 생각하게 한다. 인연 융화사 재가선방에서 만나 도반이 된

“마지막 순간까지 화두를 놓지 말아야 다음 생애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제 진부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어 20년 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이 될 것이라 한다. 또 현재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명 중 1명이 36만 원 이하로 한 달을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라 한다. 노년과 행복, 노인복지, 노인 포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행복지수... 이 큰 화두를 무상화 보살님은 한마디로 타파한다. “나이 들수록 바빠요.”  
 임연태 기자

##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스님 법어집

# 철벽을 부수고 벽안 [碧眼]을 열다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의 핵심.



## 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시는 좌선의 기초 방식과 화두참구법, 국내 초역인 “밀전참선요법”과 “밀전불법통지” 수록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받은 물론 고암 스님이 쓰시던 발우와 주장자, 금란가사를 물려받은 오등선원의 조실 한암대원 스님. 부처로부터 이어지는 황금의 여러 법맥 중 한반도에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끝자락에서 있는 한암대원 스님이 가리켜 보이는 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곧 부처님이 가섭 존자에게 눈짓해 보인 소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요, 팔만사천 법문의 핵심으로 깃쳐들어가는 일이며,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에 거하는 묘한 도리를 깨우치는 일일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신국판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